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가족체계내 하위 구조들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에 관심을 둔 가족체계이론은 오랫동안 가족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한편,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가족체계이론을 외적으로 확장하여 개인이 몸담고 있는 여러 생태환경과 개인간의 상호 작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등 단계적 차원의 여러 체계들이 소개되고 있다 (Bronfenbrenner, 1977, 1981; 양명숙, 1991에서 재인용). 시간체계(chronosystem)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제안되는 또 다른 체계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및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일종의 전환기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결혼은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간체계 경험으로, 서로 다른 체계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미시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후 이자 중심의 관계가 삼자적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첫 자녀의 출산 경험 역시 또 다른 시간체계 경험으로,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상당수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개인 및 부부 모두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는데(Lemaster, 1957; Belsky & Kelly, 1994; Belsky & Pensky, 1988; 양명숙, 1991),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녀의 출산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 및 기대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준다. 첫 자녀 출산 후 부부 사이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줄어드는 반면, 갈등이 잦아지면서, 결혼만족도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Shapiro, Gottman & Carrere, 2000).

첫 자녀 출산 이후 부부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으로는 혼전 임신이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아내의 취업 활동, 가중된 경제

적 부담 등 상황적 요인이 지목되어 왔으며 (이강호, 2006, 이숙현, 1990), 관계적 요인으로서는 부부공유시간의 감소, 임신 중 부부 갈등, 아내의 우울감, 출산 후 남편의 육아/가사활동에 대한 참여 부족 등이 지목되었다. 이들 요인들은 출산 후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에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희, 2010; Snowden & Schott, 1988; Shapiro, Gottman & Carrere, 2000; Belsky & Pensky, 1988; C. P. Cowan & Cowan, 1992; Rausch, Barry, Hertel, & Swain, 1974). 특히 자녀 양육 및 가사와 관련, 부부간의 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내 결혼 만족도의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에 따르면, 자녀의 출산이 모든 부부에게서 갈등을 유발하고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Wright, Henggeler, & Craig, 1986; Cowan & Cowan, 1988). 대체로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결혼 만족도의 저하가 나타나기는 하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Cowan 등(1995)의 연구를 보면, 남성의 45%, 여성의 58%에서만 만족도가 저하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 중 18%는 출산 이후 오히려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전환기에 잠시 결혼 만족도의 저하가 나타나지만,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적응한다는 보고가 있다(이숙현, 1989, 1990). 이에 대해 연구자는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결혼직후부터 본인 뿐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부모기로의 진입에 대해 기대를 받으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녀 출산 경험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 자녀의 출산 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보다는 어떤 과정이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첫 자녀의 출산으로 개인 혹은 부부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험들-신체적 변화, 경제적 부담의 가중, 육아부담, 개인 및 부부시간의 감소 등-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부부가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적응해가는지 그에 대한 과정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들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 결혼만족도의 감소를 막아주는 안전요인(buffer)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Shapiro 등(2000)의 연구를 보면,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요인으로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애정 표현, 상대 배우자 및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많았던 부부들은 자녀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이후 6년간의 추적 조사에서도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고선주와 옥선화의 연구(1994)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거주지나 재정문제, 성역할, 성관계 및 주변과의 관계 등에 적응했던 부부들이, 임신기에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2010)의 연구에서는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있어 남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아내의 높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에 집중되고 있어, 첫 자녀 출산 후 부부들이 겪는 경험을 개인 혹은 부부가 어떻게 인

식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적 정보를 실제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과정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법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조용환, 2005; Crewell, 2010), 오제은(2011)의 지적처럼 최근까지 관련 주제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그간 연구들이 주로 여성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성 배우자의 경험에 대한 정보는 오제은(2011)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오제은, 2011; 이세미, 2009). 이를 감안할 때, 첫 자녀 출산 경험의 주체자로서 아내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관심을 두고, 변화된 상황에서 부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하며 어떻게 상호작용/적응해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적, 체험적 정보를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참여하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첫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각자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와 그러한 경험이 갖는 의미 및 인식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체험적 보고를 바탕으로 자녀 출산 후 변화된 관계, 환경, 상황에 부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해 나가며 이러한 적응이 부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의 출산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첫 자녀의 출산 후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첫 자녀의 출산 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남편과 아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하는가?

방 법

근거이론접근방법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0, 1998)의 근거이론접근법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은 Strauss와 Corbin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킨 방법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호 비교 및 검토를 통해 귀납적으로 이론을 추출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가 근거이론적 접근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부부가 생애전환기적 사건-결혼과 첫 자녀 출산-을 겪으면서 이후 달라진 환경과 역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그러한 과정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체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하는 부부들은 이론적/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표집되었는데, 즉, 이론 개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의 기준에 맞춰 부부들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초혼으로 이전에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없는 부부, 둘째, 첫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의 부부, 셋째, 첫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부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는 모두 13쌍, 26명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남편의 경우 33.23세, 아내의 경우 30.84세였다. 결혼 기간은 평균 29.68개월로 3년 미만이

었으며 첫 자녀의 평균 월령은 11.66개월이었다.

교육 수준은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이었으며, 맞벌이 부부는 6쌍,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부부는 5쌍, 아내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부부는 1쌍이었다. 부부 모두 뚜렷한 경제활동없이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1쌍이었다. 한편, 맞벌이 부부 6쌍 중 3쌍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내가 휴직을 한 상태였으며 남편의 휴직은 없었다. 전체 부부 중 10쌍이 부부가 주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원가족인 경우 2쌍,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1쌍이었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부부가 1쌍,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부부가 1쌍이었다.

자료 수집 및 절차

모든 부부들은 연구의 목적과 수행 과정이 안내된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면담 이전에 미리 우편을 통해 받아 보았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부부들과의 첫 만남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모든 자료의 수집은 사전 서면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본 연구가 첫 자녀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의 부부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면담은 시기적으로 구분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세 가지 시점(時點)-결혼 전후에서 임신 전, 임신기간 및 출산당시, 출산 후 현재까지-에서 개인/부부단위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하였다. 부부를 함께 면담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회 평균 90분~120분이 소요되었다.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부부 번호	연령대	학력	직업	수입	부부 번호	결혼기간 (개월)	동거 가족	자녀 성별	자녀 월령	주 양육자	
1	남편	30대초반	대졸	회사원	200-500만원	1	27	자녀	남	13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졸	전문직(휴직)	200-500만원						
2	남편	40대초반	대학원졸	자영업	100-200만원	2	13	시조모 자녀	여	6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학원졸	프리랜서	100-200만원						
3	남편	30대초반	대학원재	학생	100만원	3	30	시조모 자녀	여	17	부부
	아내	20대후반	대졸	주부	100만원						
4	남편	30대중반	대졸	회사원	500-1000만원	4	42	자녀	여	9	친조부모
	아내	30대중반	대학원재	전문직	200-500만원						
5	남편	30대후반	대학원졸	전문직	200-500만원	5	58	자녀	남	7	친가가족
	아내	30대후반	대학원졸	사무직(휴직)	200-500만원						
6	남편	30대후반	대졸	회사원	200-500만원	6	36	외조부모 자녀	여	24	외조부모
	아내	30대초반	대학원졸	회사원	200-500만원						
7	남편	30대초반	대학원졸	전문직	200-500만원	7	20	자녀	남	10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졸	주부	-						
8	남편	30대초반	대졸	자영업	500-1000만원	8	36	자녀	남	12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졸	회사원(휴직)	500-1000만원						
9	남편	30대초반	대학원졸	회사원	200-500만원	9	13	자녀	남	8	부부
	아내	20대후반	대학원재	학생(주부)	100만원						
10	남편	30대초반	대졸	회사원	200-500만원	10	15	자녀	여	6	부부
	아내	20대후반	대학원졸	주부	-						
11	남편	30대초반	대학원재	학생	-	11	43	자녀	남	3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졸	회사원	200-500만원						
12	남편	30대초반	대졸	회사원	200-500만원	12	23	자녀	여	12	부부
	아내	20대후반	대학원졸	주부	-						
13	남편	30대초반	대졸	프리랜서	100-200만원	13	27	자녀	여	10	부부
	아내	30대초반	대졸	주부	-						
평균	남편	33.23세				평균	30.40 개월		남=6 여=7	11.92 개월	
	아내	30.84세									

될 경우 1회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1쌍을 제외한 모든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연구자 준비

제 1저자는 질병체험 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학제간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연구원참여당시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위한 인터뷰 프로토콜을 공동개발하였으며, 당뇨 환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전 문헌 검토를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검토가 면담 자료 분석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참여자의 발언 내용과 의도에 최대한 집중하였다.

자료 분석

분석에 앞서, 녹음한 면담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코드화하였다. 초기 코드표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 및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얻어진 주요 개념들 중심으로 대략적인 리스트를 작성한 후 제 1저자가 먼저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자료는 임상/상담 석사과정생들과 함께 1차로 검토, 개선되었으며, 2차로 다른 연구자와 함께 코드표를 살펴보고,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선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념의 명명, 범주화 및 통합과정,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부부상담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 필사본을 여러 번 읽어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 신뢰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자 2인

이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협의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세팅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타 연구자에 의해 추후 반복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이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하였다. 선행 연구결과검토를 통해 이론적 민감성이 면담에 대한 분석시 선입견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우선 추상도가 낮은 수준의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들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데이터를 절편화하여 그에 맞는 개념을 부여하는 라벨링작업 후 각 특성들을 범주화시키는 작업이다.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개념들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총 71개의 개념, 26개의 하위범주와 10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표 2).

축코딩

생성된 범주들에 대해, 관계 잇기를 통해 현상의 구조와 과정을 파악하는 축코딩(Axis Coding)을 진행하였으며, 첫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부부 경험 및 적응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패러다임에 속하는 범주들은 원인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관련성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패러다임 모델

표 2. 개방코딩을 통한 개념 및 범주

데이터(괄호안은 사례번호)	속성/차원	하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 결혼결정 후 임신/ 준비중이라 부담 없었음(2) · 결혼결정 전 임신/남편의 책임있는 대응, 안정(9)	- 혼전임신시기 (결혼 결정전/후) - 대응(안정/불안정)	혼전임신에 대한 대처	
· 신희없이 바로 임신(1, 3, 7, 10) · 예상치 못한 임신(1, 2, 3, 6)	- 6개월내 임신 - 계획여부(계획/무계획)	신희의 임신 인지와 반응	
· 생기지 않아 신경쓰던 중 임신(4, 5) · 계획, 준비(몸관리/마음관리)하며 임신(4, 8) · 적당한 시기에 임신(11, 12, 13)	- 6개월후 임신 - 계획/준비된 임신 - 불임 염려	계획/바라던 임신과 반응	임신시기와 반응
· 긍정적 반응 / · 별 느낌 없었음/ · 염려/걱정반응	- 임신에 대한 부부반응 (기쁨/궁정~ 염려/부정)	임신에 대한 부부 반응	
· 손이 귀한 시점에서 임신 환영(1, 2, 4, 7, 11) · 처가에선 혼전임신 걱정, 그러나 곧 지지(2, 9)	- 임신에 대한 주변반응 (기쁨/걱정)	임신에 대한 주변가족 반응	
· 결혼초 갈등/가사분담갈등 지속(사례 5) · 충분한 대화/부부시간 공유(2, 7, 11, 12, 13)	- 임신 전 부부관계 (갈등/만족)	임신당시 부부관계	임신시기 부부관계
· 건강/임신체질(2, 3, 12, 13) · 건강이 좋지 않음/입덧/조산기에 입원(6, 7)	- 임신기간건강-신체건강 (양호-나쁨)	임신기간의 신체건강	
· 행복감/부부서로에 대한 배려 · 산전 우울/조울증처럼 불안정(5, 7, 9, 10) · 대처:- 산모 스스로 마인드콘트롤(1)	- 임신기간건강-정신건강 (안정-불안정) 임신기간 지지/대처	임신기간의 정신건강	임신기간 건강
· 임신기간 남편의 지지(2, 6, 7, 8, 12) · 임신 중 남편의 부재(5)	- 남편 지지/배려 (적음-많음)	임신기간 부부관계	
· 주변의 배려	- 주변의배려/지지 (적음-많음)	임신기간 주변관계	임신기간 관계경험
· 힘든 출산 경험(2,5) / · 순산경험(1, 3, 9, 11, 12, 13) · 아기 건강 염려(2)/아기 건강 양호(1, 3, 4, 11, 12)	- 분만시교통 - 아기 건강	분만과정	
· 분만시 남편의 참여와 지지(6, 7) · 분만시 남편 부재/이후 종종 서운함 표시(11)	- 분만시 남편의 참여 (참여-불참여)	분만과정의 부부관계 경험	분만경험
· 건강양호(2, 11, 12) 관점은 안좋아짐 · 잘 회복되지 않음/간염(6)산후우울경험(5, 7, 10) · 수면 부족/만성피로(1, 2, 3, 6, 7, 10, 11, 12)	출산 후 건강 모의 건강 (양호 1- 6)	산후 건강	
· 모유수유관련 스트레스(3, 5, 6, 10) · 조리기간의 답답함/양육 스트레스(2, 10) · 예민한 아기(3, 5, 6)	- 모유수유 - 아기기질	산후정서 (산후우울) 대처	산후 양육경험
· 초보육아/낯은 육아효능감(1, 2, 5, 10)	- 육아효능감(높음-낮음)		
· 시대/친정지원/양육, 가사부담감소/우울회복(7) · 남편의 관심과 배려/아내 1순위(2)	산후우울회복(빠름-더딤)		

데이터(괄호안은 사례번호)	속성/차원	하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 양육분담에 대해 의논 없었음 · 양육분담 사전의논/철저히, 서로 수면 시간이 모자르지 않도록 배려(11)	- 양육분담에 대한 합의 (있음 - 없음)	양육분담 논의 남편 참여의지	
·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11, 12, 13) · 양육분담에 대한 남편의 의지표현/측은지심 · 남편의 양육효능감/남편에게 맡겨도 안심(2, 9)	- 남편의 양육참여 수준 (적음 - 많음)	남편의 양육참여요인	양육분담
· 시댁살이, 그러나 양육지원없음/남편 지원(2) · 친정지원(7, 9)/양육지원위해 딸 집앞으로 이사(9) · 시댁에 육아 상당의존(4, 5)/시댁에 맡기고 주말에만 만남/ 시댁양육 신뢰중인 남편, 아내의 불안(4)	- 양가 양육지원 (없음 - 있음)	남편 이외의 양육지원	
· 취업모의 갈등	- 양육관련 취업모갈등	일과 양육 병행	
· 커리어 단절/재취업 어려움/막연, 자신없음(10)	- 커리어관련 취업모갈등	개인 경력의 단절	맞벌이 및 취업모 갈등
· 전업주부 선호하나 어려움 · 남편의 맞벌이 선호(4, 6, 9) · 맞벌이에 대한 낮은 선호(12, 13)	- 맞벌이선호도 (낮음 - 높음)	맞벌이에 대한 입장	
· 긍정적 변화 · 변함없이 어려움/부정적 변화	- 원가족과의 관계변화 (긍정 - 부정)	원가족 관계변화 및 대처	
· 원가족대처/남편의 중재(1)/전혀 중재못함(3)	- 남편의 중재 (부재 - 적절)		
· 출산 후 부부관계 · 부부 공유시간/부부활동 감소	- 부부시간 부부활동 (감소 - 증가)		
· 부부 공유시간/부부활동에 대한 요구, 필요성	- 부부의 대처 수준 (부재 - 적절)		관계변화
· 출산 후 거의 성생활 가지지 못함(2, 10, 11) · 성생활 감소에 대한 대처/대응	- 성생활변화(감소-유지) - 변화 대처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와 대처	
· 갈등 감소/부부 서로의 노고를 이해/남편의 양육참여, 효능감, 아내에게 여유(2, 11) · 갈등 심화/피상적 갈등감소: 시간 없음(5)/갈등회피(3, 5, 7)/남편의 회피(3, 5)/포기, 대화의 단절(3, 5) · 갈등대처 / 서로의 감정이 민감, 사과, 대화, 감사표현(6, 7, 8) / 남편 양육참여로 부부갈등 무마(5)	- 부부갈등(심화 - 유지) - 갈등 대처(적응 - 부적응)		
· 가사분담에 부담 ·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분담(2, 9) · 가사분담에 대한 기준 두지 않음(5)	- 가사분담조율(없음-있음)	가사분담과 부부관계	관계변화
· 역할변화/책임감/사명감의 증가 · 성숙/성장의 단초(2, 6, 7, 12)	- 새로운 역할수용	개인적 의미	
· 아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남편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부부 차이에 대한 수용과 보완(1, 7)	- 배우자에 대한 관점 변화 (수용/인정)	배우자의 의미	첫 아이 출산의 의미
· 리얼 결혼 생활의 시작/완성된 느낌 · 아이의 출생, 가족의 형성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5, 남편)	- 완성체 / 성숙추구	가족의 의미	
· 미래에 대한 가치 공유 · 양육관 등 미래에 대해 부부간소통 없음(5)	- 부부간 가치공유 정도	미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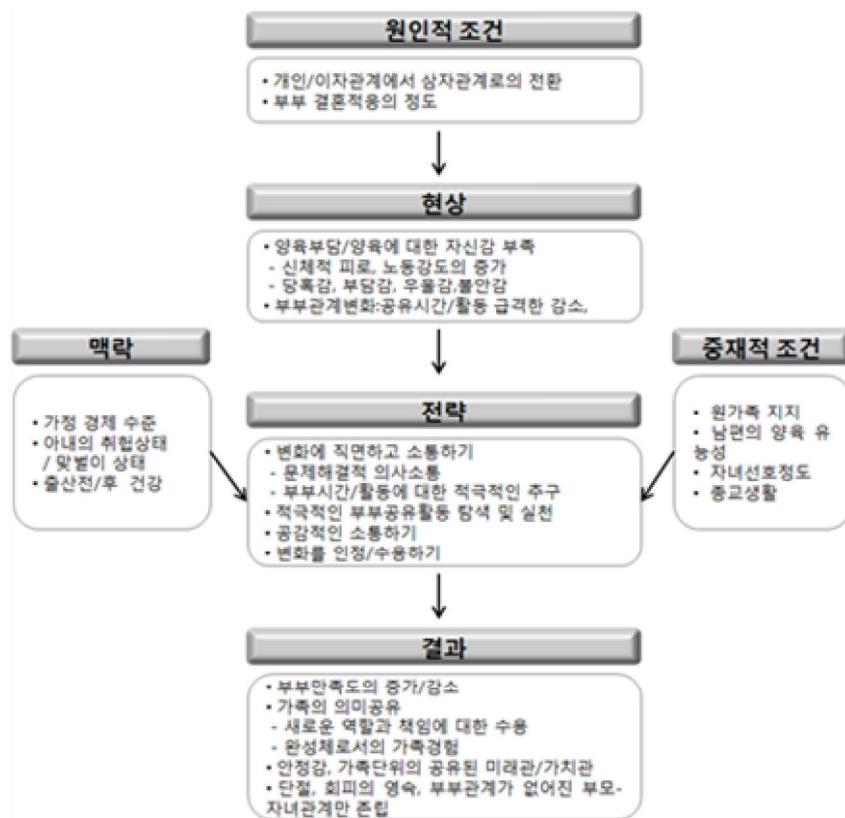


그림 1. 첫 자녀 출산 후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

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첫 자녀 출산 관련 현상에 대한 원인적 조건

면담 자료로부터 두 가지의 원인적 조건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첫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경험들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원인적 조건은 ① 개인 혹은 이차적 관계에서 삼자적 관계로의 전환이며, ② 첫 자녀의 출산까지 부부의 결혼적응 정도이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의 경우, 개인 혹은 이차 관계에 익숙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의 출현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삼자관계로의 전

환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과 함께 자녀를 기대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는 부부들이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접하면서 기쁨과 신기함을 느끼는 한편 당혹감을 느낀다.

“5월에 결혼하고 8월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바로 생긴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녁에 신혼 부부들이 나와서 도시락 먹고 둘이서 맥주 마시고 그러는 거...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갑자기 애가 생기니까”(1번 아내)

혼전 임신(2, 9 부부), 결혼 직후 수개월 내의 임신(1, 3, 7, 10 부부)에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시기 자체보다는 자녀를 갖기 위해 두 사람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크게 표현했다.

“결혼하기로 했고 진행 중에 애기가 생긴 걸 알아서 뭐 특별히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아니었어요. 제 기분이 이상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아기를 안 가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기가 생겼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술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만약에 애기가 생길 줄 알았으면 술을 안 먹고 준비를 하는 건데...(2번 남편)...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기가 생긴 거니까, 준비를 좀 했어야 하는데..서로 클리닝 작업을 한 다음에 가진 게 아니라서요(2번 아내)”

한편, 원인적 조건 중 두 번째로 부부의 결혼 적응 정도를 들 수 있다. 결혼 초기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확대가족과의 적응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독립된 가족체계로서 사회경제적인 적응도 도모해야 하는 시기이다(강혜숙, 김영희, 2008)).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녀 출산이라는 또 다른 전환기적 사건에 직면한 부부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남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 임신하니까 당장 경제적인 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지금까지도 기대고 사니까

약간씩 계속 충돌이 있어요(3번 아내)”

두 사람의 성격적 적응이 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임신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부부관계를 냉담하게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서로 바빠서, 주말에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고 특별히 친밀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중략).. 같이 살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집안일이나 그런 거. 근데 늘 패턴이 자기 일 먼저니까. 자꾸 늦어지게 되고, 이 사람한테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죠(5번 아내)”

“결혼하고 나서 시종일관 견지한 자세가 있다 그러면,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그 거죠.....(중략).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요. 뭐(웃음)...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바빠서 되게 좋았어요.. 서로 마주칠 일없고, 속된 말로 바가지 굵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5번 남편)”

반면, 고선주와 옥선화(1994)의 연구결과처럼, 임신 전 충분한 적응 기간과 과정을 겪은 부부들은 임신 기간 중에도 아내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보내며, 임신을 계기로 두 사람의 공유시간/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랑 와이프랑 성격이 달라서, 완벽하게 상극을 달렸었어요. 연애 때는 정말 많이 싸웠죠. 그러다 많이 좁혀진 상태예요. 웬만한 거는 속 시원히 얘기하고, ... 나중에 얘기하면 편한 거도 있고. 반반씩 조정하

는 거죠(8번 남편) / 정말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만 조금 그랬지 이후론 거의 안 싸운 거 같아요(8번 아내)”

“결혼을 해서 더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계도 편해지고, 사람들 만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일때보다 부부일 때 주변 시선이 더 따듯했던 거 같아요(중략)임신하고 나선 남편이 되게 많이 배려해 준 거 같아요. 좋은 거 먹어야 한다고 도시락도 싸 주고, 피곤할까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기도 하고, 일부러 일찍 와서 산책 같이 나가고요(2번 아내)”

가족구조 변화와 결혼적응 수준에 따른 현상

출산으로 새로운 가족 구조에 직면한 부부는 결혼적응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정의되는 데 하나는 ① 양육부담/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우울감이며, 다른 하나는 ② ‘부부관계 변화’이다. 모든 아내들이 모유수유 등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만성피로를 경험한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로서 육아에 압도되는 경험 및 그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수유를 밤중에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끄응’하는 소리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안들리는데 ‘끄응’하는 작은 소리에도 깨요. 잠을 잘 못자요. 아이 낳고 두 시간 이상 쪽 자본 적이 없죠...(중략) 처음에 아이 낳고... 정말 목장의 젖소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웃음). 계속 젖만 짜내는 젖소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인간인가? 나는 과연 인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2번 아내)”

“엄마가 애를 침 넣아보고 그러면 애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 같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류의 우울증이 크죠...(5번 아내)”

우울감은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아내들에게서 보고되었으며, 원인으로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출산 후 사회활동의 제한, 더딘 산후 건강 회복, 취업모의 직장 복귀에 따른 걱정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남편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아내에 비해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먹이는 등의 양육 부담은 적었으나, 아내들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거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잘 못해주면 어떻게 하나...(중략)제가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인데, 벌어 놓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아이를 잘 먹이질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생기고, 걱정이 커지죠(2번 남편)”

“책임감 그런 거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전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 안했는데, 이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평상시 행동할 때도 어떻게 비춰지겠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10번 남편)”

오제은(2011)의 지적처럼 남편의 경우 경제

적 책임감 및 그로 인한 부담이 많긴 하였으나, 이밖에도, 좋은 아버지/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원인적 조건은 ‘부부관계의 변화’로, 출산 후 공유시간/공유활동의 감소가 모든 부부들에게서 나타났다. 자녀가 배제된 부부만의 시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감소된 공유시간/공유활동에 대해 남녀가 경험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남편의 경우 대체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둘만의 시간 갖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아내를 1순위에 두고 부부 둘만의 시간 갖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너무 좋지만, 그래도 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웃음)(8번 남편)”

“가끔 둘만 시간을 갖자 하면,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오빠 평소에는 바빠서 아이 못 보고, 설 때도 아이 안 보려하냐고 그래요.(1번 남편)”

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첫 자녀 출산 후 모유수유 등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남편과의 시간이나 활동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부부만의 시간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보가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현상은 남편들의 애정결핍감 및 소외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이후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체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애기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애기랑 같이 가야 더 좋지요. 같이 안 가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아요(6번 아내)”

“애기가 좀 크면 뭐... 남편은...이제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웃음)(3번 아내)”

대화시간의 감소, 자녀로 한정된 대화 주제가 부부대화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모든 부부들이 출산 전에 비해 현저하게 성생활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내들은 출산 후 감소된 성생활을 인정하면서, 성욕 자체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 성관계에 대한 바람을 좀 더 표현하고 있었으나, 육아/시댁살이 등 환경적 요소(3), 산후 아내의 건강과 회복에 대한 염려(2, 10) 등으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남편이 출산 과정을 함께 한 경우엔 아내의 회복에 대한 염려가 커 성욕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출산할 때를 같이 있어서, 그 상처가 다 나았을까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아이 낳고 한 번 했는데 전혀 즐거움을 못했어요. 무슨 의사 진단하듯이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때는 제가 무슨 의사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2번 남편)”

자녀출산 후 갈등 횟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주요 갈등영역으로는 경제적 부담(3), 가사/양육 부담(1, 3, 5, 8, 12), 양육에 대한 시

맥과의 견해차(3) 등이 진술되었다. 가사분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절한 가사분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지속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5). 양가 가족의 지원 및 일부 가사도우미의 지원을 통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는 있으나 이러한 대처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설거지야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애는 시댁에서 먹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청소가 문제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온 사방이 어지러우니까. 이걸로 남편하고 싸워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 솔루션은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죠(5번 아내)”

“그런 얘기 들으면 전 본인이 안하면서 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잔소리 같죠 (5번 남편)”

첫 자녀 출산 후 경험의 맥락 조건

첫 자녀 출산 경험에 있어서 맥락 조건으로는 ① 가정 경제 수준, ② 아내의 취업상태, ③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등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늘어난 소비가 보고되었으며, 남편이 홀벌이인 경우, 경제적 위기감을 유발, 가외적인 수입/아르바이트의 필요성(8), 맞벌이에 대한 선호(4, 6, 9)를 나타냈다. 홀벌이임에도 가게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아내의 취업여부 등에서 훨씬 선택의 폭이 많았다(12).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 중이었던 아내들은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싶거나(12, 13), 전업주부로 자녀양육을 선호(4, 6)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댁에 육아를 전담하거나(4, 5), 친정부모의 지원(12)으로 육아를 해결하는 등 대안적 방법을 모색 중에 갈등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한편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를 희망하는 경우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홀벌이를 꺼려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을 토로했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 중 3쌍은 현재 육아 휴직상태인데, 휴직으로 인해 이전의 커리어와의 단절, 사회활동의 좌절, 이전 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10, 11)에 대한 염려, 계획했던 사회활동이 좌절됨으로 인한 우울감(10)이 진술되기도 하였다. 임신 전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아내(6, 7)들은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입덧도 심하고 조산기가 있어서 3개월 전부터는 누워서 지냈어요. 병원에서 애가 1.5kg는 넘어야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낳는 건 오히려 수월했는데, 산후조리하면서 혼자 아이 본다 그런 게 힘이 들었나봐요. 결국 두 달 만에 간염에 걸려서 몸이 더 안 좋아진거죠(6번 아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조건

맥락에 추가하여 첫 자녀의 출산 후 나타나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이를 중재조건이라 하는데, 출산 후 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재 조건으로는 ① 원가족

지원, ② 남편의 양육 유능성 ③ 아이에 대한 남편의 선호 ④ 부부의 공통된 종교생활이었다.

첫 자녀의 출산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초보 육아에서 오는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 이때 원가족, 특히 양육 경험이 많은 손위 어른들의 지원이 초보 엄마, 아빠에게는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6, 7). 그러나 원가족지원이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어서, 부부간 사전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가족지원, 부부의 양육관과 충돌하는 원가족의 양육관 등은 부부 개개인의 스트레스일 뿐 아니라 관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3, 5).

“시부모님이 되게 잘 해주시는데...원래 문제가 없었다가 애기가 태어나니깐 문제가 되게 커졌어요. 젊은 사람은 책도 많이 나오고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 보고 나름 육아원칙을 세우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냥 상관없다고 막 이리시고(3번 아내).”

출산 후 관계변화를 중재하는 조건들에는 남편의 양육 유능성, 아이에 대한 남편의 선호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양육 유능성이란 적절한 때에 자녀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남편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은, 비록 아내가 더 많은 양육 부담을 지더라도 관계에 대한 만족과 남편에 대한 감사 등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2, 9). 더불어 아이를 좋아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남편의 태도는 아내가 좀더 편하게 남편에게 육아 협조를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애기를 정말 좋아하고 잘 봐요. 처음에는 별별 떨고 잘 안지도 못했거든요. 이제는 능숙하게 잘보고...온 힘을 다해서 놀아 줘요. 이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두면 안심이 되죠(9번 아내)”

“남편이 아이 봐주고 해서 여러 번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애 때문에 모임에 못 나간 거는 몇 번 없어요. 애를 워낙 좋아하고 잘 봐서 걱정 없이 맡기고 나갈 수 있어요(11번 남편)”

한편, 부부의 공통된 종교생활은 자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을 중재하는 주요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제가 기도로 만난 사람이라서... 확실히 내 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점이 보여도 그걸 보완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13번 아내)”

첫 자녀 출산 후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

첫 자녀의 출산 후 부부는 이전에는 없던 다양한 양육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의 일상도 아이 중심의 일상으로 재편되고, 아내가 담당해야 할 양육행동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내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부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의된다. 즉, ① (변화/갈등 상황) 직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② 공감적 소통하기, ③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기이다.

변화에 직면하고 소통하기

양육 부담에 대해 부부는 그때그때 사안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적인 소통으로 대처 방안을 찾는다(2, 9, 11). “서로 기본적인 수면 시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밤중 수유의 순서를 정하거나(9)”, “육아에서 아내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정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일 위주로 가사를 분담(10)”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조율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율 없이 전업 주부로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경우(3), 아내의 복직으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남편(5)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부부간에 해결을 위한 대화는 회피하고 있다.

“제가 아침에 아이 데려다 주고, 저녁에 다시 찾아오고 아내 올 때까지는 다 고스란히 제 몫이에요. (아내가) 복직하기 전까진 전혀 그런 거 안하다가 이제는 다 제가 해요. 그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걸요. 복직만 해봐라. 너 죽었다... 지금은 그냥 얘기 안해요. 말하면 싸우니까.... (5번 남편)”

한편, 출산 후 급감한 공유시간/공유활동에 대해 불만의 토로나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일상 속에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찾아 실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 주제의 상당 부분이 아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러라도 아이 얘기 말고 다른 거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2번 부부)”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마트나 가까운 공원 산책을 함께 나가도록 한다(1, 2, 8, 10).

“거의 언제부터지 의무적으로 나가요. 어디든 나가요. 공원이나 마트나 산책이나. 그러면 기분전환도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야 겠더라고요. 아니면 아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치고 해서 저희 시간을 못 가져요(8번 남편)”

공감적인 소통하기

감사, 배려, 미안함을 전하는 공감적인 소통을 통해 소원해진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킨다. 양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아내의 모습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2, 8번, 10번 부부). 또한 남편의 가사분담, 양육참여에 감사하며 이를 인정, 표현하고자 한다.

“아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신경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배려해주고 오빠는 좀 늦게 와서 피곤하니까 다른 거 하고 있어. 이럴 때 참 고맙죠(10번 남편)”

“제가 좀 기대가 있어서 남편이 알아서 해줬으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부탁하면 안 들어 주는 건 없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요. 안하는 것보다 낫고 그래서 고맙다고 해요(8번 아내).”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첫 자녀의 출산 경험을 개인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부부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개인, 부부, 가족 체계 내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주요 대처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 부부는 아빠,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의 의미를 탐색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 아이에 대한 희생과 봉사, 사명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인식하고 수용한다.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각성(2, 6, 7, 12), 부정적인 생활 습관을 털어버리고, 금주 등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겠다는 결심(2, 6, 10, 13)이 뒤따른다. 또한 아빠/엄마의 새로운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겠다는 긍정적인 의미화 과정이 진술되었다.

“책임감이 크죠. 생각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졌으니까. 스트레스라만 스트레스지만, 달라졌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집에도 빨리 와야 하고... 오고 싶고.. 생활이 많이 건전해졌죠(10번 남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아이를 낳아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13번 남편)”

첫 자녀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비단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부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로 이어진다. 남편의 시각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아내가 보이는 책임감과 희생, 초보 엄마임에도 날로 향상되는 양육 유능성(1, 10, 12)에 대한 경외감/존경심을 경험(2, 13)하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측은지심(2, 10)을 경험하고,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엄마가 되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까칠하고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엄마가 되니까 아훌륭한 엄마다, 책임감도 많아지고...되게 잘 챙기고 간수하고 그래요(1번 남편)”

아내의 경우,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이는 남편에 대해 남자, 남편, 아빠로서의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며, 비록 균등한 양육 부담, 가사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에 대한 만족,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경험한다(1, 2, 7).

“분만 때 제가 9시간 진통을 했어요. 화장실에 가면 제가 혼자 있는 게 싫었나봐요. 그래서 제 옆에서 아침부터 물 한 모금을 안 먹고 애기 낳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고맙죠. 아직도 생각이 나요(7번 아내)”

“결혼하기 전에 애기 낳으면 자기가 다 키워줄 테니까 일단 막 낳으라고 그랬거든요. ...(중략) 근데 사실 젖은 나한테 달려 있지 이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시간을 어차피 저랑 보낼 수 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 같아요(2번 아내)”

더불어,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졌음에도, 의식적으로 남편의 개인 시간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을 허용하는 아내의 태도도 나타났다(1, 12, 13).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서 하라고 하면 완전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10시까지 운동하는 걸로 정했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13번 아내)”

“남편이 만날 7시 땡하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미칠 노릇일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라고. 저도 친구들도 만나야하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1번 아내)”

대처전략의 결과

결과는 일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는 행동/상호작용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예상되는 행동/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앞서 기술된 일련의 전략들이 발휘됨으로써, ① 부부의 만족도 증가/감소, ② 가족의 의미공유, ③ 미래에 대한 가치 공유, ④ 우리성의 획득을 경험한다.

결혼만족도의 증가/감소

아내의 변화된 역할 수행에 대한 존중과 인정, 경외감의 경험은 곧 부부관계, 결혼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남편의 결혼만족감을 증가시킨다(1, 7, 8, 12). 또한 임신 및 출산, 양육 과정에서 아내 및 상황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적 대처 및 배려는 전 시기에 걸쳐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아내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개인 시간을 조절하고 공유시간/활동을 늘리려는 태도(2, 3, 12, 13),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보이며 아빠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태도(2, 11), 분만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며 아

내와 함께 하려는 모습(6, 7) 등은 아내로 하여금 관계의 안정감, 결혼이 주는 만족감을 갖는 계기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과 이후의 변화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결혼 전, 출산 전 생활과 현재의 생활에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정과 수용과정이 없을 경우(5), 부부관계 전반에서 만족도가 낮고 갈등 역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의미 공유

첫 자녀 출산 이전의 이자적 관계경험은 부부에게 연애시절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했다(1). 그러다 첫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부부는 아빠/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이자적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한다. 자녀의 출산으로 둘 사이에 비어있는 틈이 매워졌다는 충만감(2), 사랑의 결정체(10), 완벽한 가정/가족의 완성(1, 8, 11)이라는 충족감이 경험된다.

“아이가 생겨서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지고,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느낌.그 전에는 헤어져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갈라서면 안되겠다, 완성된 느낌? 기적의 100일이 지난 거죠(11번 남편)”

“아이가 없었다면 제 평균수명이 더 줄었겠죠. 아이가 생겨서 저희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냥 이전엔 결혼한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관계에 있어서 썬어야 하는 거 더 많이 채워나가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2번 남편)”

미래에 대한 가치 공유

첫 자녀의 출산을 계기로 부부 각자의 삶과 부부단위의 삶 모두에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생성된다(1, 2, 12, 13). 개인목표를 인정함과 동시에(1), 가족/자녀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미래관의 추구가 등장하며(1),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부부가 양육관을 공유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부부간 발전적인 소통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된 양육관 형성 없이 양육에 대한 부담만이 호소되고 있었다(5).

핵심범주 및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를 추출하고 이를 다른 범주들과 이론화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핵심범주는 ‘부부의 새로운 역할 인식과 수용 및 우리성(We-ness)의 추구’이다. ‘우리성’이란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Buehlman, Gottman, & Katz, 1992; Reid, Dalton,

Laderoute, Doell, & Nguyen, 2007). ‘우리성’의 획득은, 결혼에서부터 첫 자녀의 임신과 출산 등 생애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부부가 경험하는 적응적 과정의 결과물인 동시에, 과정 전반에서 개인과 부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적응 과정의 이론적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상호작용하던 남녀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의식(ritual)을 통해 새로운 가족체계를 형성한다. 신혼 초 이자적 관계에서 부부는, 결혼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시기 부부는 서로 개별적인, 독립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로서 부부의 정체감 즉, ‘우리성’을 획득한 상태도 아니다. 부부는 새로운 가족체계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 따라서 적응기의 긴장과 부담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첫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새로운 생애사적 사건의 출현은 부부 모두에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역할과 기대치를 부여하며, 상당한 심적 부담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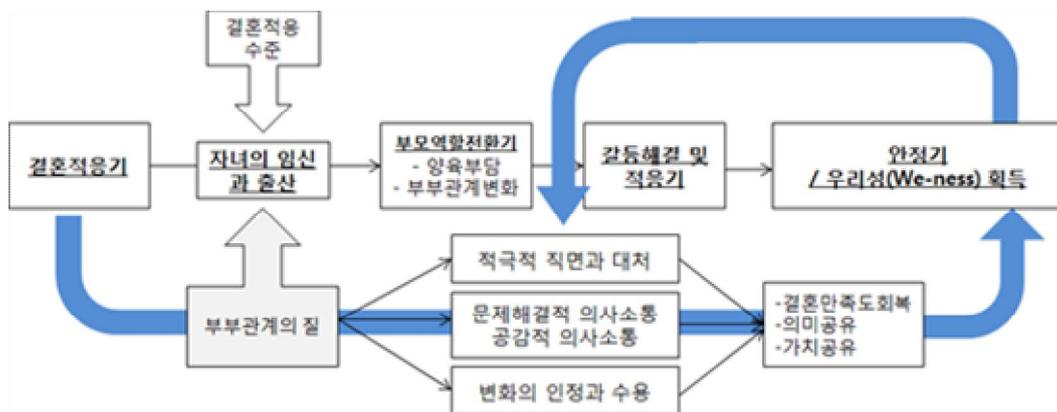


그림 2. 첫 자녀 출산 부부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그러나, 임신이 여성의 신체와 정서, 사회적 활동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는 간접적이며, 수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아내의 임신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아내의 신체적/정서적 변화, 출산에 대한 준비 등에서 부부의 공유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자녀의 출산을 맞는 경우도 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임신 직후부터, 부부가 함께 변화에 대처하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하기도 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경우 각각에서, 부부가 느끼는 첫 자녀 출산 및 적응 과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출생과 함께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변화 및 초보 엄마/아빠로서의 역할 혼란과 유능성의 부족은 개인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혼란은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부부에게 일정부분 예상되는 혼란이나, 충분한 결혼적응기를 보냈거나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공감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보인 부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적인 시도를 보이며 문제 상황에 대처한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감사와 배려를 주고받는 부부들은,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부 관계를 마치 나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며 새롭게 공동체적인 정체성과 친밀감, 즉 ‘우리성’을 경험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성’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호작용을 유지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Reid, Dalton, Laderoute, Doell, & Nguyen, 2007). ‘우리성’의 추구는 출산 후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던 결혼만족도를 회복시키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새로운 의미화, 즉, 완성된 형태의 가정을 이루게 된 계기 혹은 충만감의 근원으로 새롭게 의미화하게 한다. 이제 부부는 자녀를 포함한 새로운 삼자 구조의 가족 체계에 적응하며 가족 단위의 미래를 꿈꾸고, 개인 뿐 아니라 부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적응기에 오르게 된다.

논 의

애정에 기반한 성인남녀의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이다. 첫 자녀의 출산경험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출산 후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결혼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앞서 Shapiro 등(2000)의 언급처럼 모든 부부에게 첫 자녀의 출산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Cowan 등(1988)의 연구를 보면 오히려 상당수의 부부들이 첫 자녀 출산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있다. 따라서 첫 자녀의 출산 경험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와 같은 이분법적 분리가 아니라, 첫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부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이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현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의 변화를 부부관계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를 이론화시키기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통해 총 71개의 개념과 2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0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여, 첫 자녀의 출산과 부부관계에서의 변화를 추론하는 패러다임을 추출하였다. 먼저 상황/원

인적 조건으로 추출된 범주는 이자적 관계에서 삼자적 관계로의 전환 및 첫 자녀 출산 이전 부부의 결혼적응 수준이다. 결혼적응은 결혼 후 겪게 되는 모든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 예컨대 두 사람의 성격적 적응 및 사회경제적 적응, 확대가족에 대한 적응 등 다방면에 걸쳐서 부부가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강혜숙, 김영희, 2008; 김한별, 2012). 결혼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정숙, 2008).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첫 자녀 출산 전 결혼 적응 수준은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일련의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원인적 조건이 되는데, 구체적인 자녀 계획 및 준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마련 등은 임신 및 출산 경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끄는 동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 후 임신까지의 기간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데, 즉, 혼전 임신이나 신혼기간 없이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보다는 결혼 후 충분히 두 사람의 시간을 가진 부부들이 좀더 안정적인 결혼적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결혼적응 수준을 시기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혼전 임신 및 신혼기 임신인 부부라도, 임신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 양육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공감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의사 소통을 적극적으로 보일 경우, 일련의 변화와 갈등에도 충분히 적응기로 나아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결혼초기 부부의 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의사소통 요인을 꼽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최정숙, 2008; 김희진, 2005; Larson & Holman, 2004).

한편, 자녀 출산 후 경험하게 되는 중심현

상에서는 양육 부담의 증가와 부부관계의 외형적 변화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는데 거의 모든 부부들에게서 급증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심적, 신체적 부담과 부부사이 공유시간/활동 및 대화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변화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에서는 부부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앞서 결혼적응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유지 정도에 따라 새로운 가족체제로의 적응 정도 및 결혼만족도의 회복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변화된 상황과 관계, 역할을 수용하고 부부가 함께 이를 공유할 경우, 기존에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남편과의 가사분담/양육분담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용하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부부는 상대 배우자가 새로운 역할, 즉, 엄마 또는 아빠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적응하며, 책임감과 유능성을 발휘해가는 모습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긍정적인 소통과 변화에 대한 수용, 인정작업은 부부에게 완성체 혹은 충분한 존재로서 가정/가족을 경험하게 하면서 자녀의 출생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인식과 시각을 갖게 한다. 아내와 남편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자녀를 매개로 더욱 공고해진 가족체계를 형성하고, 양육관을 비롯해 가족의 미래에 대해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며, 공동체로서의 '우리성'을 획득해가는 데, 이러한 모습이 첫 자녀 출산 이후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견해 주고 있다.

'우리성'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

로 관계내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단초가 되는 자기중심성을 극복케 한다. 또한 ‘우리성’은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쉽과 친밀함을 공유하며 서로의 장점, 책임 뿐 아니라 불완전함, 때로는 부적절한 면들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Reid, Dalton, Laderoute, Doell, & Nguyen, 2007; Rachel, Simmons, Gordon, Dianne, & Chambless, 2005),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이해하는 공감적인 소통을 가능케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공유된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성’을 추구하는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질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첫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부부의 긍정적인 적응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성’의 추구로 귀결되는 것 같으며, 결혼 및 출산의 전과정을 거쳐 부부의 긍정적인 소통이 ‘우리성’ 획득에 중요한 전인차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의 긍정적인 소통이란 어떤 것일까? 이와 관련한 단초는 Shapiro 등(2000)의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징적인 의사소통 패턴에서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출산 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존중/자애/사랑(fondness)의 표현’, ‘아내와 부부관계에 대한 남편의 관심과 인식’, ‘남편과 부부관계에 대한 아내의 관심과 인식’이 반영된 의사소통이 출산 후 부부의 안정적인 결혼만족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안정적인 적응을 보인 부부들의 의사소통 패턴을 보면, 먼저,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식의 대처가 아닌, 적극적으로

로 직면하고 문제해결적 소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문제해결적 의사소통은 출산 후, 실제로 양육 및 가사분담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이 었다. 그러나 보다 더 특징적인 면은 Shapiro 등(2000)의 결과에서처럼, 부부간의 감사와 연민/미안함, 인정과 존중을 표현하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임신 단계부터 출산, 이후 양육 전 과정에서 부부의 안정적인 적응을 예측해주는 주요 조건으로 나타났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해결적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간의 공감적 소통이 전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Shapiro 등(2000)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성’을 대화분석을 통해 측정된 바 있는데, 그 결과, 출산 전 부부의 ‘우리성’ 관련 의사소통 패턴이 출산 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제한적인 설명량만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아마도, 해당 연구가 결혼 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은 부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성’을 발현시킬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바, ‘우리성’ 관련 소통 자체가 적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Belsky와 Kelly(1994)의 초기 견해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즉, ‘우리성’은 부부가 부모가 되는 전환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결혼초보다는 부모가 된 후에 주로 언급되는 요소여서, 신혼 부부들에게는 출현 빈도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우리성’이 획득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 빠른 시일내에 이를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혼 부부 대상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신혼부부들이 부부단위의 정체성인 ‘우리성’을 빠른 시일내에 자연스럽게 획득하기는 어려운 바, 신혼부부 대상 프로그램에 관련 콘텐츠를 포함, 운영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우리성’을 획득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성’을 획득한 부부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부모 전환기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결혼만족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 자녀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전환기적 사건에 직면한 부부의 경험을 분석, 적응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첫 자녀의 출산 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대부분 한쪽 배우자,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의 변화 혹은 우울감 등의 부적 정서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내 뿐 아니라 남편 또한 자녀 출산 경험의 주체험자로 연구에 포함시켜,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경험을 채집하는 데 주력했다. 이론적 기준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30대 고학력자,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성’의 획득 및 가족의 의미/가치추구 등과 같은 무형의 개념들은 삶에 대한 인정과 수용 등 성장 관련 요인들과 관련이 높아 연령 및 학력 변인 등에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 및 계층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경험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로 이러한 점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 및 학력수준,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집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성’의 획득은 부부 단위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Reid, Dalton, Laderoute, Doell, & Nguyen, 2007), 사회문화적으로 ‘우리’에 익숙한 한국의 문화권에서 철저하게 이자적인 차원으로만 ‘우리성’이 정의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취업모의 경우 자녀 양육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원가족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부부간의 ‘우리성’ 보다는 아내 원가족과의 ‘우리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면이 부부 관계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실제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첫 자녀 출산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8~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한 세대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상당 부분 희석되었고, 개인주의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오늘날 신세대가 경험하는 결혼과 임신, 자녀의 양육은 전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금 세대의 연애와 결혼, 출산 등 일련의 경험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본 연구를 필두로 이러한 후속 작업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 초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안정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 고선주, 옥선화 (1994).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3: 부모기 전이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양육분담.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6.
- 김경은, 장연집 (2008).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질적 연구* 9(1), 31-42.
- 김한별 (2012). 결혼초기 부부의 적응과정에서 학습경험 탐색: 근거이론 접근. *교육문제연구*, 44, 1-35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7(4), 877-906.
- 양명숙 (1991). 부모 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의 첫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학회지*, 3, 31-53.
- 오옥선, 김선봉 (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8(2), 235-260.
- 오제은 (2011). 첫 자녀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8), 73-83.
- 왕영희, 이예진 (2010). 결혼만족도 관련 변인 연구.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505-522.
- 이강호 (2006).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미 (2009). 첫 아버지 되기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1989). 한국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겨울), 161-181.
- 이숙현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주희 (2010). 첫 자녀 출산 후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 옥선화 (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전은주 (2007).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직장 복귀에 관한 결정요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 (2005).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최정숙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 103-152.
- 통계청 (2011). 201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 Agnew, C. R., Rusbult, C. E., Van Lange, P. A. M., & Langston, C. A. (1998). Cognitive interdependence: Commitment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4), 939-954.
- Belsky, J., & Kelly, J. (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Why some couples grow closer and others apart*. New York: Dell.

- Belsky, J., and Pensky, E. (1988)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ital and Family Review*, 12(1-2), 133-156.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531.
- Bronfenbrenner, U. (1981). *die ökologie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Stuttgart: Klett.
- Buehlman, K. T., Gottman, J. M., & Katz, L. F. (1992). How a couple views their past predicts their future: Predicting divorce from an oral history int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4), 295-318.
- Cialdini, R. B., Borden, R. J., Thorne, A., Walker, M. R., Freeman, S., & Sloan, L. R. (1999). *Basking in reflected glory: Three (football) field studies*. In R. F. Baumeister (Ed.),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Key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 Cowan, C. P., & Cowan, P. A. (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New York: Basic Books.
- Cowan, P. A., & Cowan, C. P. (1988). "changes in marria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ust we blame the baby?"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ed. g. y. michaels and w. a. goldber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wan, P. A., & Cowan, C. P. (1995)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y they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44(4): 412-423.
- Crewell, J. W.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9). What predicts change in marital interaction over time? A study of alternative medicine. *Family Process*, 38(2), 143-158.
- Larson, J. H. & Holman, T. N.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2), 228-237.
- Lemaster, E. E. (1957). Parenthood as a crise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4), 352-355.
- Rausch, H., Barry, W., Hertel, R., & Swain, M. (1974). *Communication, conflict and marriages*. San Francisco: Jossey-Bass.
- Reid, D. W., Dalton, E. J., Laderoute, K., Doell, F. K., & Nguyen, T. (2007). Therapeutically induced changes in couple identity: The role of we-ness and interpersonal processing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32(2), 241-284.
- Rollins, B. C., & Feldman, H.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1), 20-28
- Schaie, K. W., & Willis, S. L. (200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ere, S., (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59-70.
- Simmons, R. A., Gorfdon, P. C., & Chambless, D. L (2005). Pronouns in Marital Interaction: What Do "You" and "I" Say About Marital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16(12), 932-936.
- Stone, L. D., & Pennebaker, J. W. (2002).

- Trauma in real time: Talking and avoiding online conversations about the death of Princess Diana.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3), 172-182.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Publications.
- Wright, P. J., Henggeler, S. W., & Craig, L. (1986). Problems in paradis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3), 277-291.
- 1 차원고접수 : 2012. 10. 30.
심사통과접수 : 2012. 11. 26.
최종원고접수 : 2012. 12. 13.

“Our first baby was born” Experience in the newly-wed couples: A Qualitative Study

Seungmi Choi

Jung-hye Kwon

Korea Univ. Marital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ave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after the first baby is born. For this purpose, thirteen couples (marriage duration of less than five years; within three years of the child birth) were recruit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In the next step, we derived the marital relationship paradigm after the first baby arrived. The causal/situational conditions that caused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were the parenting burden and the marital adjustment level. The central phenomena were parenting and housework burden, which were moderated by the husbands' support.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couple's high awareness and acceptance for their new role and pursuit of the shared meaning of the family. When the strategies were successful, a deeply satisfying feeling and shared values could be obtained. Finally, we identified the core category to integrate of other categories into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at is 'the awareness and acceptance for their new role and the pursuit of a sense of We-ness'.

Key words : marital relationship, first baby, ground theory, We-ness